

감사보고서

회계감사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 사 회 귀중

2023년 2월 15일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법인사무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상리자연어린이집, 다솜장애인주간보호,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 하누리주간보호,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이티장애인공동생활가정,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최종병기공동생활가정, 연말카드사업 · 행복플러스가게 2곳 · 카페북아현, 서은단기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 상리노인복지센터, 상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도구푸드마켓 및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이하 “한국재활재단”이라 함)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수행한 사업의 수입과 지출 및 재산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 동 회계연도의 수지계산서 및 자산·부채 내역(이하 “재무제표”라 함)을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재활재단의 정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였으며,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의 수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가 (복지)한국재활재단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수지내역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 사 · 공 인 회 계 사

김 호



감 사 · 공 인 회 계 사

장 대



수정 및 권고사항

1. 세입세출결산서(단식부기)에서 재무상태표 등(복식부기) 작성

세입세출결산서를 주로 작성하다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간단한 예를 들어 작성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

- 단식장부에 의한 기장방법은 전 계정과목을 통괄하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이 없이 현금이나 예금등 특정재화의 증감에 한정하여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불완전한 부기 방법이다
-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방법은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모든 자산이나 부채 등의 증감변화를 조직적으로 기록계산하며 자기검증능력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완전한 부기방법이다.

(2) 부기(장부기장)의 목적(주로 복식장부를 기준하여 설명)

1) 부기의 주목적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업의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손익계산서)

2) 부기의 목적은 위 주목적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은 부목적을 가지고 있다.

- 경영자가 새로운 경영방침과 계획 등을 수립하기에 용이(내부인에 대한 목적)
-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외부인에 대한 목적)
-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투자자, 후원자, 정부기관, 과세관청 등을 포함한다.
- 장부 작성자의 오류를 줄여주는 자기검증 기능을 제공

(3)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서(ex.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ex.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안점

- *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처음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아 아주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기관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 기본자료 예시(세입세출총괄표) _ #자료1 참조

1) 손익계산서 작성 _ #자료2 참조

* 손익계산서는 당기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기의 경영성과와 관계없는 회계자료(ex. 전년도이월금, 차기이월금 등)가 포함되어서도 안되지만, 반대로 경영성과와 관계있는 자료가 누락되어서도 안된다

* 손익계산서 양식에 따라 “세입”은 “매출금”과 “영업외수익”으로, “세출”은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당기 “세입” 중에 차기분을 미리 수령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에서는 차감하고(당기의 세입이 아니므로), 재무상태표의 부채계정인 “선수수익”으로 계상한다.(다음 년도에 넘겨주어야 할 부채이기 때문)
_ 반대의 경우에는 “매출”과 자산인 “미수수익”에 가산

* 당기분 비용이지만 당기말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여 “세입세출총괄표”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익계산서비용계정에 가산하고, 재무상태표의 부채계정인 “미지급금”계정에도 가산한다.
_ 반대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비용계정에서 차감하고,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인 “선급금”계정에 가산

2) 재무상태표의 작성 _ #자료3 참조

* 재무상태표는 당기말 현재의 재무상태(자산,부채 및 자본)를 파악할 수 있다. 단식부기에서 수입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부외자산 또는 부외부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ex. 예수금, 퇴직예치금, 선급금, 미지급금, 미수금, 선수금, 미수수익 및 선수수익 등)

* 임차보증금,대여금 등 외부에 존재하는 자산도 기관의 자산이므로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계상하여야하고, 반대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이라도 장래에 외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로, 부채의 증가는 자본의 감소로 동시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 작성 후 검증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다음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증한다.

- a. 재무상태표의 현금예금계정금액 = 현금예금명세서 합계액
(=단식부기의 차기이월액)
- b.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금액 =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금액
- c.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 재무상태표의 부채및자본총계
- d.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e. 손익계산서에 당기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금액의 포함유무 확인
- f. 손익계산서에 당기 수익이나 비용의 누락유무 확인 끝.

* #자료1~ #자료3은 교육자료로 사용.(비첨부)

2.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매년 반기별로 년2회(7월과 1월) 국세청에 보고하는 세금계산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는 미 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누락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기한후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승인절차 및 증빙관리를 포함한 전표처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4. 금융조회서 및 잔액증명서 대사

2022년 9월 중간감사 때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기준은 은행조회서를 발송하여 대사 확인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은 잔액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장부금액과 대사 확인하였습니다.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는 없으며, 복지관 및 시설에서 제시한 장부금액과 모두 일치 함을 확인했습니다.

5. 재물조사 검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복지관 및 시설에서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 퇴직급여(DC) 불입내역 확인

2022년 중 급여지급내역과 퇴직급여 불입내역을 대사하였으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업무감사

부산지부장 조덕자

상임이사 문동팔

2022년 시설 운영 성과보고서를 각 시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3년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법인 교육장에서 각 시설 대표들이 모여 시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사업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업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무처를 포함한 서울지역 시설 등은 최병학이사와 문동팔상임이사가 실시했고 부산지부는 조덕자치부장이 실시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각 시설의 잘한 점이나 미흡한 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단사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교육원의 경우 1년에 약 15,000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지는 업무이나 이것을 실제로 계수하지 않아 직원들의 수고를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차기 사업에는 피교육생 모집에 관한 전화상담도 계획하고 실시한다면 많은 인력이 들어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운영 성과평가 연인원 실적 94.9/100

다양한 외부 자원 확보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으로 이용인에게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하여 지원하였고 보호자와 함께 한 사업운영으로 보호자간 유대강화와 보호자와 시설간의 유대관계 증진하였다.

시설 인근 홍제천에 서대문구청에서 설치한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가는 안내판이 세워져 시설접근을 쉽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인 만족 성과 시스템 구축이 다소 미흡하였고 종사자 행정업무 과다로 심신면에서 소모가 높아 소진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용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계발해야했고 그 계발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인 만족도는 높으나 종사자의 업무부담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활용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적절한 업무분장과 관리가 요구된다.

2.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운영 성과평가 89/100점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면에서 코로나 19로 소극적인 시설운영 결과 실적에서 연인원 78% 달성하였다. 외부자원개발 노력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인적자원, 물적자원 개발 결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시설운영을 개인별 지원 강화로 실시한 결과 이용자에게는 도전적 행동 발생 빈도 감소하여 이용자들에게는 소그룹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위치 때문에 이동차량운행이 필수조건이지만 직원들의 과외 업무가 불가피했는데 직원의 근무시간 탄력운영을 실시하여 근무여건 개선노력을 하였다.

3. 하누리주간보호센터

시설운영 성과평가 91.6/100

2022년 하누리주간보호센터의 업무는 인적물적자원개발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특별사업을 실시해야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4. 서은단기보호시설

2022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 결과 평가 총점이 좋지 못했다.

서은단기보호시설의 강점은 생활인의 생활수준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시설장과 직원들의 인식이나 자세는 높게 평가되거나 약점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비전 및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대한 시설장과 직원의 협력과정이 미흡하고 잦은 직원의 이직율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개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적성과 시설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시설에서는 안전에 관한 표기나 소방관련 점점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시설 공간 이전이나 확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2023년 서은단기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 옆 401호를 향후 임대하여 전체적인 공간확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설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4천만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월 임대료 10만원씩을 부담하면 1차적인 시설 공간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자원의 확보가 부족했고 시설이 협소하여 종사자의 환경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시설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하는데 이는 바로 이용의 적극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울러 시설장의 사회복지 1급 획득을 위해서 1년이란 기간을 주고 달성되지 못할 경우 재임용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5.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시설운영 성과평가 99/100

단기보호시설운영 356일 계획중 323일 운영으로 90% 달성.

2022년 8월 26일 향후 5년 (2022.9.1.-2027.8.31.)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다.

2022년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종사자의 이직율이 높아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2022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 결과통지에 근거하여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총점 등급 A로 열악한 환경가운데도 열심히 노력한 면이 나타났다.

이직율이 높은 이유로 야간근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야간전담인력을 두고 주간에 집중적인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6. 다솜공동생활가정

시설운영 성과평가 102.5/100

다솜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거주인 1명이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사망하여 종결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 지원을 받게 된 해였다.

무연고 거주인들을 위해 365일 시설을 운영하였고 코로나19 환경속에서 거주인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등 거주인들의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함으로 거주자에게는 좋았으나 담당 직원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365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으로 명절 연휴시에 타 그룹홈 무연고 거주자를 지원한 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 거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이 과외 시간에 관여했던 이용자 지원은 활동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지원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월금으로 살펴 본 예산의 변화는 전년도 이월금 41,582,000원 이 차기년도 이월금 39,873,000원 (1,709,000원 더 사용)임을 볼 때 2022년에는 시설 운영면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다.

7. 아이티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남성 발달장애인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최소의 개입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자세로 운영한 결과는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적이 약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주중 프로그램지원이 약했다. 자율권보장도 계획적이어야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결국 주 담당 종사자의 변경으로 수립해 놓은 사업계획서가 현재 종사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3년 사업계획 수립에서는 이용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수행해야 한다.

8.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여성 발달장애인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나 2022년에도 거주자 중 1명이 퇴소하여 지역주민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룹홈 거주자의 자립생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그룹지도가 곤란하다고 평가되었는데 그룹지도가 곤란할 경우 개별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 좋겠다.

무연고 거주인의 경우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사회서비스(활동지원사)를 신청하여 지원받게 되면서 직원이 감당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타 지원인력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자립 가능성에 두고 서대문그룹홈 거주자들의 자립 기능이 좋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종사자의 인식 때문에 자원봉사자 개발과 활용 면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거주자들의 개별적인 정서지원도, 역량강화도 자원봉사자는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자원 확보 및 성과면에서도 해당없음이 아닌 적극적인 개발로 거주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9 최종병기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남성 발달장애인 4명이 거주하는 가정으로 거주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다.

낮활동 근무시간을 마치고 귀가하여 무료하게 여가생활을 보내는 거주인에게 복지관 개별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로써 거주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족으로부터 지원되지 못한 심리적인 면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병기도 민간자원 확보 노력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 활용이 미흡하였다. 이는 코로나 19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원봉사자는 더 필요하다.

위기가구 발굴 및 상담연계를 통해서 볼 때 자폐성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보호자가 죽겠다고 표현하여 그룹홈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며 지원한 것도 위기가정 발굴 및 상담 연계이다. 그런데 일을 하고도 그 일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도 그 회의가 고충처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의 경우 2022년 말부로 관장의 정년퇴직을 노략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직하여 근속율 52.6%로 나타났다. 직원 채용의 공정성 면에서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에 외부 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외부위원의 불참시에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한 빈도가 높았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3년 복지관 수탁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5년동안 실시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잘 정리하여 공유하였다.

전반적으로 2022년 한국재활재단 사무처를 비롯하여 산하 시설운영 실적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증가했지만 연인원 달성율은 9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100%를 초과 달성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산하시설 직원들은 시설 직원간 정기 모임이 활성화되어 상생의 기회를 갖기 원하였고 시설사업을 공유함으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월 1 회 시설대표자 모임과 이사회의를 앞두고 안건 취합과 내용 공유를 위한 회의 등을 실시하여 산하시설 직원들과 교류하려고 합니다.

2022년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감사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 상황 지속, 최고중간관리자 2명 퇴사(정년퇴임 및 이직)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실적을 계획 목표 대비 100.1%를 달성하였습니다. 복지관 3대 기능사업 및 부설센터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고위험 대상자를 전년대비 158% 확대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개발·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과 자립역량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ICT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의 인자·정서, 식이영양, 신체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서비스제공사업은 지역사회 내 고독사 제로화를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 중년독거남성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 「아자아자」, 독거노인 가정 전력사용 모니터링 사업 「컨센트」,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정다운 이웃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고독사 발생 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조직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발맞추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지역주민 간 소통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참여 한마당」, 「빛 축제」, 「희망상자 만들기」 등 주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역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돌봄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담인력 1명 추가배치, 이용 장애인 1:1 맞춤지원 강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섯째, 영도구 푸드마켓은 지역사회로부터 기부식품을 후원받아 월 평균 450명의 저소득 지역주민에게 연간 약 3억 3백만원 상당의 식품 및 생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최우수」 기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제2기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4년간(23년~26년) 총 사업비 9억 8천 5백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발판으로 지역복지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써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상리자연어린이집 업무감사

상리자연어린이집은 2022년 평가제, 열린어린이집 재선정(보건복지부)되었으며, 2022년 우수급식시설상(서영도구급식지원센터)수여, 2022년 어린이집 보육장학제 교사 표창장(부산시장상, 영도구청장상) 수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반(07:30~19:30)을 개설해 담임 교사의 야간업무가 아닌 연장반 전담교사가 아동을 보육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외부 현장체험활동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내 제한적인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활동업체와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비대면 공연관람(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공연 등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내부에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원내의 문화생활경험이 더 많아졌습니다.

셋째, 교직원들의 연수도 온라인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었고, 어린이집으로 찾아오는 보육장학, 컨설팅 등의 다양한 매체 참여를 통해 교직원 역량강화에 힘써 전문성 높은 어린이집 운영에 힘썼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상황 속에 감염예방을 위해 진행된 ZOOM교육 비대면 기간 동안 진행했던 부모참여 의견 등의 및 평가를 비롯하여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소통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부모와 피드백을 주고받아 종이서류의 보관 및 분실의 위험이 적어 어린이집과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거리두기 해지에 따라 회의, 교육 등이 점진적으로 대면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황에 적응하며, 비대면 운영방식의 장점은 계속해서 활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22년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업무감사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단 더클린영도(방역 및 유아동용품세척) 개업하였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는 취업지원형에서 창업지원형으로 GS편의점을 개소한 큰 성과가 있었고, 202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 운영비가 지급되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주요성과는 11개 자활사업단, 4개 자활기업 체계적 운영, 저소득 일자리 창출 기여이며 19년부터 시작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취업지원형에서 창업지원형으로 GS 편의점을 개소하였고,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방역 및 유아동용품 세척사업을 진행하였음. 2021년 대비 2022년도 매출은 15.7% 향상되었음. 이를 통해 2021년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사업 진행 시 위생과 안전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영도구만의 특화된 체계적인자립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영도지역의 자활근로 대상자들의 노령화와 근로능력의 저하로 인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른 신규 자활사업 개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현 사업단 참여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공석 시에도 신규 참여자들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지자체와의 수시적인 소통을 통해 영도지역 내의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확보하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23년 사업 진행 시 위생과 안전을 기조로 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구만의 특화된 체계적인 자립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부산 영도지역의 인구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조건부 수급권자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 운영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